

아주대의료원소식 12

2004

통권 제 119호 / 발행일 2004. 12. 1 / 발행인 김孝哲 / 발행처 아주대의료원 홍보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443-721) 전 화 (031) 219-5114

· 목 차 ·

- 2 포커스
제1회 안진·건강도시 정책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3 선인재 클럽
본질에 충실해야 할 때
- 4 진료교실
그것이 알고 싶다, 키 늘리는 수술
- 6 병동클럽 11층 서병동
- 8 신간안내 골이형성증
- 9 특집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과대학장 인사말
의학부의 특성과 방향
간호학부의 특성과 방향
교원학생 프로그램 체험기1
교원학생 프로그램 체험기2
아프리카 의료 및 봉사 체험기
2005 수시1차 합격생 병원견학기
간호학부 사회봉사실습 체험기
간호학부 해외의료봉사 체험기
아주대 의대 학생활동
- 22 Global Network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아주대학교병원과 美軍
- 23 AMC NEWS
- 28 건강 Q&A
- 30 장기기증은 사랑입니다
- 31 협력병원 탐방 오산노인전문병원
- 32 의료발전 후원내역
- 34 전문클리닉 소식
- 35 진료시간표

현명한 선택, 아주대 의대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지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지구촌에서 더 나은 국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필요하다면
글로벌 캠퍼스를 실현하고 있는 아주대 의대로 오십시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는 소망을 가졌다면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헌신하는 아주대 의대로 오십시오.

멈춰 있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젊은 아주대 의대로 오십시오.

제2의 슈바이처와 나이팅게일이 되려 한다면
훌륭한 인성을 겸비한 인재 육성에 소홀함이 없는 아주대 의대로 오십시오.

당신을 성장시키고 꿈을 키워 줄 후원자를 찾는다면
학생 중심의 대학 아주대 의대로 오십시오.

아주가 그려가는 미래에 당신의 무한한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십시오.
아주대 의대가 기다리겠습니다.





제1회 안전·건강도시 정책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아주대학교의료원, 국내 최초 WHO 안전도시 지원센터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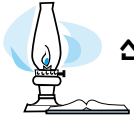
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소장 조준필)가 지난 11월15일 월요일 세계에서 14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WHO 안전도시 지원센터(Affiliate Safe Community Support Center)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수원시가 공동으로 「제1회 안전·건강도시 정책개발을 위한 심포지엄」을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용서 수원시장과 이종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장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안전증진 연구자와 지역 보건 의료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WHO 안전도시 협력센터 슈바스트름 소장이 참석하여 「지난 30년간의 국제안전도시 운동」에 대해 특별 강연을 하였고, 아주대학교의료원 조준필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장이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아시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인증받은 수원시 안전도시 사업(김혜경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장)과 서울시 안전·건강도시 사업(양인승 서울시 보건소 기획팀장),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 사업(김차순 창원시 보건소) 사례를 발표, 국내 안전·건강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향후 정책적 지원 및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김찬호 안양시 동안구보건소장, 이정렬 연세대 간호대 학장,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대표가 토론자로 참가해 열띤 토론과 질의를 펼쳤다.

안전도시 지원센터란 안전도시 아이디어를 널리 알리는 것을 돕고 안전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지자체나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센터이다. 이번 공인식 및 심포지엄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는 향후 산, 학, 관 합동체계를 통해 대학의 발전과 자치단체 및 정부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국내외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한 능력을 배양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단체 및 정부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 정책 수행을 위한 연구와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를 위한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본질에 충실해야 할 때

「한 시골 청년이 어렵게 학업을 마친 후 작은 사업을 시작하였다. 예리함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그는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하였고 마침내 그의 회사를 굴지의 대기업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결집력을 잃은 그 대기업은 쇠퇴 일로를 걸었고 결국 다른 경쟁기업에 팔려버렸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0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여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으로 성장하였다. 그 동안 많은 지도자들이 탁월한 역량으로 의료원을 이끌었으며 모든 교직원은 헌신적이었다. 우리는 막 작은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우리의 약속(미션), 비전(목표), 핵심가치를 만들어 냈고, 담대한 목표들을 실천하기 위해 의료원의 모든 힘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 나는 그 동안 의료원이 정치적(?) 혹은 재정적 어려움에 허덕일 때 다른 대기업이 의료원을 인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부끄러운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비전수립 과정에 참여하면서 강한 자기 비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보존하며 인재를 육성하고 끊임없이 발전을 지향하는 건강한 조직만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때가 아니며, 모두가 본질적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체계적이고 역동적인 구성원으로 거듭나야 할 때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의료기관은 다른 일반 기업들과는 다르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토론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학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정해진 것으로, 불변의 진리와 같이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다. 우리는 아픔으로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러할 때만 끊임없는 헌신이 가능하다. 본질에 충실할 때 이윤의 극대화 또한 가능하다고 믿으며,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영속적 존립과 발전이 실현될 것이다.

후일 우리의 담대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 잘못된 결과이며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각각의 생각과 행동은 다르더라도 이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동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주대학교의료원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본질에 소홀할 때 우리는 곧 쇠퇴하고 말 것이다.



탁 승 제 주임교수 / 순환기내과학교실

선인(善仁)이란 노자 도덕경에서 인용한 말로 인을 잘 베푼다는 뜻이다. 의과대학 지하 카페테리아에 있는 선인재(善仁齋)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을 논하고 즐기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키 늘리는 수술

키가 작은 사람이라면 키 늘리는 수술에 대해 한 번쯤 꿈꿨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키 늘리는 수술을 담당하는 정형외과 조재호 교수로부터 팔다리 교정과 재건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고통에서 해방, 팔다리 교정

최근 의학 기술의 발달로 과거부터 시행해 오던 팔다리 교정 뿐만 아니라 고치기 어려운 팔다리의 길이 차이와 변형 등도 교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주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는 짧은 팔다리, 다리 길이 차이 등으로 인해 걷는 것이 불편한 사람, 사고나 수술 후 생긴 관절 운동장애, 소아마비나 뇌성마비로 인한 팔다리 변형이나 다리 길이의 차이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를 위해 팔다리 교정과 재건술을 시행하고 있다.

어떤 질환에 적용되는가

치료 대상은 여러 가지의 질환에서 적용이 되지만, 특히 짧은 팔다리, 양측 다리 길이 차이로 인해 걷는 것이 불편한 사람 또는 골절 및 피부나 근육 손상 후에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선천성 기형과 소아마비나 뇌성마비로 인한 팔다리 기형으로, 비교적 흔한 무릎관절이 굽혀지는 굴곡 변형과 발목관절 및 발의 기형(발끝만이 닿는 침족 변형, 발목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휘어있는 발의 내반과 외반 변형 등), 그 밖에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혈우병 등으로 인한 무릎 관절의 기형일 경우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골절 후 뼈가 비정상적인 위치에 붙어 있는 부정유합의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하다. 선천성으로 다리 길이가 짧은 경우 또는 심한 변형을 보이는 경우 일리자로프나 알비지아 등의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길이를 늘려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리 교정이 가능하다. 선천적으로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팔다리가 돌아가 있는 회전 변형 또는 외상으로 인해 모양이 심하게 변형되는 경우에도 쉽게 교정이 가능하다.

사지연장술의 종류

사지 연장술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리자로프와 같은 둥그런 모양의 연장기, 알비지아(Albizzia)는 뼈 속에서 키를 늘리는 골수 교정기이다. Orthofix 등은 길쭉한 모양의 연장기이고, 그 외에 팔다리 교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한 번에 교정한 후에 교정기구를 이용하여 재 교정시키는 절골술이 있다.

정확한 신체 측정이 필수

이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 일리자로프는 사지에 착용 시킬 수

있는 정확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기구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협조 하에 정확한 역학적 분석, 의사의 정확한 판단, 노력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와 상담하여 수술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충분히 고려한 후 환자는 입원하게 된다. 입원을 하면 환자의 신체검사와 측정이 필요하며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방사선 사진 촬영을 실시한다. 또 기구 제작 후에도 기구를 환자의 몸에 대보면서 촬영을 하기도 한다. 정밀한 기구의 제작만이 환자와 의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또한 수술시간의 단축도 이에 달려 있다.

점차적으로 키를 늘리기 위해 뼈 절단

수술은 팔의 경우 전신 마취 하에서, 다리의 경우 전신마취 또는 척추 마취 하에서 방사선 사진을 보면서 신경과 혈관 등을 피하여 뼈에 핀을 삽입한 다음 원통형 기구와 뼈를 연결하여 조립하게 된다. 이후 점차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기구를 장착한 후 뼈를 절단하며 이때 약간의 피부절개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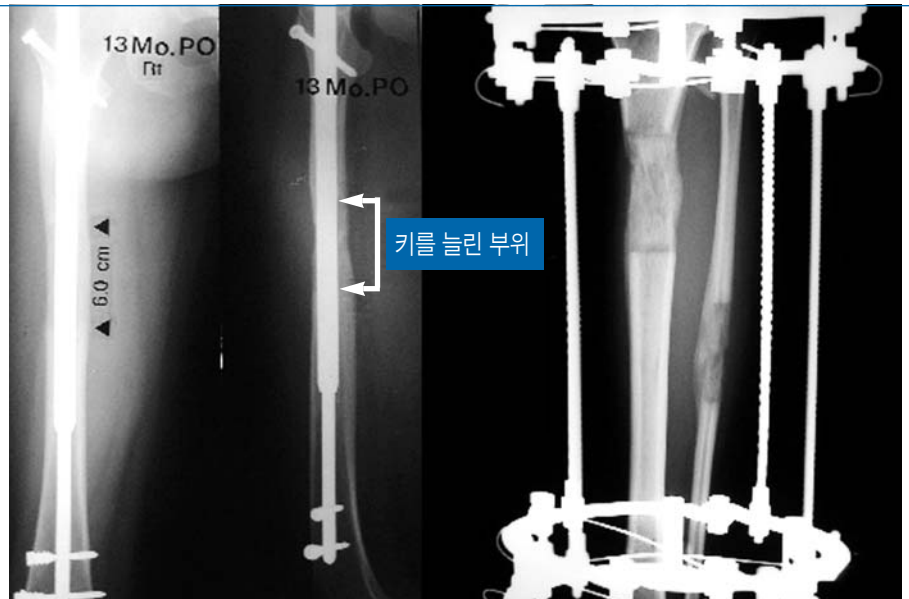
5cm 늘리려면 7개월 정도 소요

일리자로프 기구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수술 방법들은 통 김스나 반 김스 또는 수술 후 바로 보조기 등을 착용할 수 있고, 통 김스는 일정 기간 후 반 김스나 보조기 등으로 바꿀 수 있으며 적당한 관절운동 등의 물리치료도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일리자로프 기구는 설치 후 뼈를 늘리거나 변형을 교정하기 전에 1주일이나 10일 정도의 쉬는 기간(휴지기)이 필요하며, 그 시기가 지나면 하루에 1mm 씩을 늘릴 수 있다. 원하는 길이로 연장한 후 늘린 날짜의 성장기 소아의 경우 2배 가량의 기간, 성인의 경우 4~5배 가량의 기간동안 뼈가 완전히 불기를 기다린 후 김스나 보조기를 일정기간 동안 장착하기도 한다. 대개의 경우 5cm를 늘리려면 수술 후 7일 내지 10일 정도의 휴지기를 거친 후 하루에 1mm 씩 늘리면 약 50일이 소요되며 그 후 약 100일 정도 뼈를 굳힌 후 30일 정도 김스나 보조기를 장착하므로 총 6~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수술 후 적극적인 물리치료가 성과 좌우

일리자로프 기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목욕 등도 가능하며, 수술 후에

는 일리자로프가 장착된 상태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관절이 굳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물리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보행 등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여 뼈에 대해 적극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뼈의 강도를 높이고 뼈 형성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다. 실제 뼈를 늘리는 동안 하루 이틀만 이러한 운동이나 물리 치료를 등한시 해도 쉽게 관절이 굳고 퍼지지 않아 치료하기가 힘든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따라서 일리자로프 치료의 성공은 잘 협조된 물리 치료 및 환자의 노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일리자로프 기구를 이용하여 최대한 효과를 거두려면 20%가 수술에 달려 있으며 80%가 물리치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관절 주위의 합병증은 근육 수축, 관절이 빠지거나 굳어지는 것 등이 있는데 어린이에서는 근육이 수축되고 관절이 굳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허벅지에 있는 큰 뼈를 길게 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운동범위가 45도 이하가 되면, 길게 하는 것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물리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늘리는 동안 발 모양이 뾰족하게 되는 첨족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팔꿈치 뼈에 철사를 삽입하여 발목 관절을 서서히 펴서 치료해야 한다. 관절이 굳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건에 철선이 관통하는 것을 피하고, 근의 이동거리를 최대로 하며, 적절한 물리치료와 보조기 관절을 피하는 기기 사용, 늘리는 속도의 감소,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그 외에 신경손상, 혈관손상, 건의 걸림,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 등의 합병증이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도 항상 수술을 받은 아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상담 후 치료해야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당부한다.

합병증 치료도 수술 받은 주치의와 상담 후 치료해야 효과

합병증에는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인 감염, 수술을 시행한 부위의 관절이 굳어지는 것, 근육에 힘이 없어지는 것, 깁스에 인한 합병증 등이 있다. 첫째, 기구와 관련된 것으로 철선 부위의 염증, 철선이 끊어지거나, 교정 각도가 어긋나는 것 등이다. 철선 삽입부에는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철선이 끊어지는 경우 구조 전체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다시 삽입하여야 한다. 교정 각도가 처음에 의도한 바와 달리 될 때는 경첩이나 교정막대를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으며 병실에서 교정이 안될 시는 교정수술을 할 수도 있다.

둘째, 뼈와 관련된 합병증으로는 조기 경화, 지연 경화, 재골절 등이 있다. 지연 경화를 유발하는 기술적 요소는 외상적 절골술, 초기 신연, 불안정성, 너무 빠른 신연 등이 있다. 이외에 굳어지는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로는 뼈에 질병이 있는 경우, 골다공증, 흡연, 술, 약물 등의 남용,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뼈에 혈관 공급이 좋지 않거나 감염이 있는 경우, 말초혈관 질환, 노인성 연조직 등이 있다. 조기 경화가 일어나는 것으로는 허벅지에 있는 큰 뼈와 종아리의 가는 뼈에 생기는 올리어 병, 연골이 형성되지 않아 생기는 무연골증 등이 있다.

어린이에게는 다 자라기 전에 뼈가 굳어지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으나, 어른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른에서 뼈가 굳어지는 시간(성숙기)은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길어지는 시간(운반기)도 성장기의 환자보다 오래 소요된다.



조재호 교수 / 정형외과학교실



친절은 기본! 열정과 꾸준한 관심이 있는 11층 서병동



11층 서병동은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의 다양한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진료과 특성상 수술이 많고 하루 평균 10~20여명의 환자들이 입·퇴원을 하며, 환자와 보호자들의 끊임없는 문의와 답변, 각종 설명으로 인하여 간호사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러한 쉴 틈 없는 업무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나면 간호사의 사명은 찾아볼 수 없고 의무와 책임감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급급할 수도 있겠지만, 11층 서병동의 간호사들은 친절은 기본, 환자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과 지속적인 관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최고의 하루가 되기 위하여 전력 질주한다.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의 마지막 문구처럼 봉사와 헌신으로 똘똘 뭉친 초심으로 간호사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11층 서병동 구성원들은 다짐한다.



이비인후과 김철호 교수가 말하는 11층 서병동

내과, 외과 등이 우리의 삶에 근본이 되는 치료를 한다면 이비인후과는 이러한 근본위에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을 치료한다고 할 수 있다. 이비인후과는 흔히 오감이라고 하는 것 중 세가지 감각인 미각, 후각, 청각과 말하고 식사하고 숨쉬는 것과 관련된 두경부 질환을 담당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도 관련된 두경부 종양환자도 있지만 기능적인 불편함에 입원하고 수술하는 경우도 많아 자연히 환자들의 특성이 타 병동과는 사뭇 다르고 다양하다. 당장 두경부 종양 혹은 기관질환으로 호흡곤란이 생겨 숨쉬는 것이 아슬아슬한 환자, 응급실에서 올라오는 각종 염증성 질환과 출혈성 질환, 암 수술 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 중이염과 축농증으로 수술하여 귀와 코를 막고 다니는 환자, 간단한 질환으로 수술 후 잠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환자까지 복잡한 환자군을 다루는 곳이 11층 서병동이다.

이러한 다양한 환자들로 구성된 만큼 환자들의 요구도 다양하고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 환자가 많은 곳이 11층 서병동이며 너무 다양한 이비인후과 환자들의 요구와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그들을 이해하고 돌보는 곳도 11층 서병동이라 말할 수 있다. 노영덕 수간호사로부터 17명 정예 간호사의 전문적인 진료와 친절함은 이곳을 지나간 많은 환자들에게 큰 감사와 위로가 되고 있다. 11층 서병동이 병원 전체적으로 볼 때 특수한 병동에 비해 눈에 띄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지만 수원과 경기남부지역의 이비인후과 환자들에게는 가장 귀한 회복과 치유의 메카가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도 11층 서병동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귀한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비뇨기과 김세중 주임교수가 말하는 11층 서병동

11층 서병동은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병동이다. 세 과의 특징은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과 입원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자주 바뀌게 되고, 입원하면 바로 1~2일 내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업무처리가 신속, 정확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도 항상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 애쓰며, 환자들의 수술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을 최소화시키려 노력하는 11층 서병동 식구들. 환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면서도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11층 서병동 식구들 모두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영랑 간호사가 말하는 잊을 수 없는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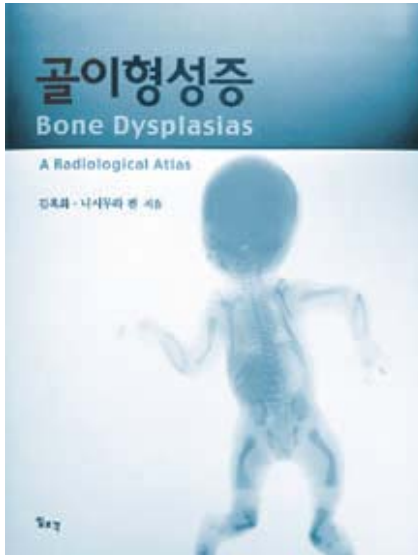
11층 서병동과 인연을 맺은지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병동 특성상 다양한 환자와 보호자를 경험하면서 유난히 우리에게 기억되는 얼굴이 생각난다. 청각장애를 가진 후두암 절제술을 받은 분으로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부인의 간호가 헌신적이었으며 서로를 배려해 주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부부가 운영하는 조그만 슈퍼에서 남편을 위하여 수고하는 간호사들에게 준다면 간식거리를 가져다 슬그머니 내미시는 부인의 작은 손에서는 사랑의 샘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두분의 애뜻한 사랑과 정성스러움이 봄비가 되어 우리들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 주곤 하였다. 퇴원후 외래 방문시에는 보호자가 개조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환자의 진찰을 받게 하였고, 어쩌다 마주칠 때면 언제나 밝은 미소로 인사하던 모습이 인상적이다. 두분의 모습이나 환경을 보면 우리가 사랑을 나눠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참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의료진의 치료와 간호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환자치료에 있어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싶다. 두분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



골이형성증의 다양한 증례가 담긴 교재, 골이형성증

「방사선학적 진단이 가장 중요한 질환인 골이형성증의 진단에 필요한 증례 사진을 중점으로 수록」



골이형성증

저 자 | 김옥화 외
출판사 | 일조각
정 가 | 90,000원
출간일 | 2004년 11월 5일
쪽 수 | 336쪽
판 형 | A5 / 판 수 | 1
ISBN | 8933704612

아주대학교의료원 진단방사선과학교실 김옥화 교수(공저 니시무라 겐)가 최근 선천성 골기형 중 한 부분인 골이형성증에 대한 증례를 모아 방사선학적 진단에 교과서가 될만한 「골이형성증(출판사 (주)일조각)」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김옥화 교수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골이형성증의 방사선 전문의로, 이 책은 김옥화 교수가 수년간 동료 방사선과 의사들과 전국 여러 대학병원의 소아과, 유전학 전문 의들의 방사선 사진에 대한 자문에 응하면서 수집한 골이형성증 증례와 일본의 니시무라 겐 교수의 증례경험이 결합되어 발간됐다. 무엇보다 이 책은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 발생한 골이형성증 증례들을 수록하고 있어 골이형성증 진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골이형성증은 대부분의 방사선과 전문의들조차 「골이형성증 증례 사진들은 다 똑같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 방사선학적 진단에 어려움이 많은 희귀질환이나 방사선학적 진단이 가장 중요한 질환이기도 하다. 이에 김옥화 교수는 방사선학적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틀라스 형식을 취해 방사선 사진에 중점을 두고 각 질환에 대해 임상 소견, 방사선 소견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책을 구성했다.

총 13개의 Chapter로 구성되어 있는 「골이형성증」책은 ▲ 치시형 골이형증 ▲ 점상 연골이형성증 그룹 ▲ 골단 침범형 이형성증 ▲ 골간단 침범형 이형성증 ▲ 골간 침범형 이형성증 ▲ 척추, 골단 및 골간단 침범형 이형성증 ▲ 척추 및 골간단 침범형 이형성증 ▲ 다발 관절 탈구 이형성증 ▲ 단일 분절 침범형 이형성증 ▲ 막성 골화 장애형 이형성증 ▲ 골밀도 감소 이형성증 ▲ 골 경화성 이형성증으로 구분하여 63개 골이형성증에 관해 다루고 있다.

특히, 김옥화 교수는 이 책에서 유전자 변이에 대한 지식을 넓혀 나가기 위해 700여편 이상의 문헌을 검토하여 골이형성증과 관련된 장애 유전자와 염색체에 대한 최신지견을 담으려 노력했으며, 「많이 부족하지만 이 책이 골이형성증 진료에 임하는 모든 의사들과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옥화 교수와 니시무라 교수는 이 책의 원고료와 저작권료 일체를 골이형성증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한선천기형포럼(Korean Birth Defects Forum)」에 기부할 예정이다.



머리보다 먼저 가슴으로 움직여라



목 차

- 10 _ 의과대학장 인사말 미래를 여는 선택, 대학 선택은 일생을 좌우합니다
- 12 _ 의학부의 특성과 방향 21세기를 이끌 인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곳
- 13 _ 간호학부의 특성과 방향 간호대학으로의 도약에 함께 참여해 보세요
- 14 _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 교환학생 프로그램 체험기 뉴욕의 여름
- 15 _ 플로리다대 교환학생 프로그램 체험기 다시 기회가 온다면 또 도전하고 싶다
- 16 _ 아프리카 의료 및 봉사 체험기 오! 나의 아프리카, 아프리카!
- 17 _ 2005 수시1차 합격생 병원견학기 환자를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 18 _ 간호학부 사회봉사실습 체험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 때도 알았더라면
- 20 _ 간호학부 해외의료봉사 체험기 나마스테... 지울 수 없는 히말라야의 미소
- 21 _ 아주대 의대 학생활동 너를 발견하고 꿈을 키워갈 대학생활

미래를 여는 선택, 대학 선택은 일생을 좌우합니다



문창현 의과대학장

올해에도 어김없이 입학시즌이 시작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진로와 대학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2005년도 수시입학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준데 대하여 감사하며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합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시전형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학생들도 정시전형에서는 꼭 합격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일부 수능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착잡한 사회분위기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시험 부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그 원인의 일부가 입시과열을 해결하지 못한 교육정책의 소산임을 부인할 수 없고, 더구나 허술한 시험관리체제 때문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범죄적 소행에 현혹되고 법적제재까지 받아야할 사태에 이른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비록 잘못된 경우이긴 하지만 위와 같은 사건들도 결국은 선택의 문제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매사에 판단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택은 자신과 대상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되어 그 결과는 자신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대학진학에서 선택은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선택의 어려움과 책임의식이 학생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은 우수한 자질과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입시정책을 마련하거나 선택하는 것이며 잘 준비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으로 입학한 학생의 미래를 보장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1988년 최초로 신입생을 선발하여 2005년은 열여덟 해가 됩니다. 또한 올해는 아주대학교의료원이 개원 1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평범한 의료인보다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곳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에게는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의사, 기초과학적 차원에서 의학의 본질을 연구하는 의과학자 또는 보건행정가 등의 길이 있다.

아주대 의대는 타 대학보다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졸업후 본인 의사에 따라 최첨단의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임상각과, 뇌질환연구센터, 의과학연구소,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 간 및 소화기 유전체 연구센터, 임상역학센터 등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등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여 그만큼 향후 진로가 무한하다.

뇌질환연구센터, 의과학연구소,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 간 및 소화기 유전체 연구센터, 임상역학센터, 세포치료센터, 세포사멸조절 신약개발센터,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등은 평준화 된 의사배출이 아닌 전문적이고 특정



대학은 신생의대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왔으며 이제는 청년기에 접어든 대학으로서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의과대학은 향후 2015년까지 「의과대학평가에서 국내 최상위권으로 진입한다」는 비전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결코 의욕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과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과 책무에 충실하면서 구성원 특히 학생의 발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학사운영을 중심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것보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였다는 자긍심을 평생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가용자원과 잠재력을 투입하여 대학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춘 대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선택하십시오. 대학진학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학생 여러분께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화된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주대 의대의 연구수준을 대변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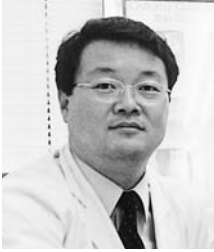
또한 대학원 의학과는 의학지식 및 생명과학 지식을 의학인 및 자연과학도로 하여금 습득케하며, 의학발전의 기본이 되는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의학자로 양성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 의학과는 의학사 이외의 학사출신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생물, 생명, 약학 등 의학연구를 폭넓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간호학부 학생들은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아주대학교병원과 기타 부설기관, 보건소, 양호실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 다양한 간호방법을 학습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 간호사로 양성된다.

간호학부 학생들은 졸업 후 아주대학교병원에 취업하는 특혜를 받게 되며, 1년간의 전문분야별 추가교육을 이수하면 보건진료원, 가정간호사, 마취간호사, 정신보건전문간호사 등의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의무요원, 일반간호장교, 의료보험 연합회, 스튜어디스로 진출할 수 있다. 특히 의학과 함께 의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어 다양한 학생활동을 의학과 학생들과 함께함으로써 졸업 후 의사와 간호사의 파트너십을 대학에서부터 배우게 된다.

대학원 간호학과 또한 간호학 발전의 기본이 되는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자로 양성하고 있다.

21세기를 이끌 인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곳



왕 희 정 의학부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15년의 역사를 지닌 젊은 대학이다. 우리의 구성원들은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마음을 갖고 일하고 또 공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실하고, 좋은 인성을 가진 창의적인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2005년 입시의 경우 수시 학생을 50% 선발한 의지도 수능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 고등학교 생활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의학부의 교육과정은 의학입문과정, 기초의학 교육과정 및 임상의학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병원봉사실습을,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의학과 예술, 의학입문 세미나, 의학과 윤리 및 의학영어 등의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이를 6년 과정에 고루 배분하여 고학년에서도 윤리 및 덕성 함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연구하여 학사개편을 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 대학의 특징을 함축해 보면 학생 중심의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생 정원은 학년별로 40~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수는 전임교수 190명을 포함하여 602명의 교수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어 학생의 일대일 지도가 가능하다. 학사지도를 위하여 학장·학생 간담회, 학사기획위원회, 학년지도 교수제 및 학생지도 및 선발위원회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생활지도를 위해 담임반지도교수제, 학생상담실, 기숙사지도위원회, 동아리지도교수제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관심사와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및 학생연구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및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학생연구비 지원제도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의학연구 부문의 실력배양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의학지식의 습득에 한 걸음 진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제도의 결실로 2004년 졸업생인 안성민 학생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여하는 「21세기를 이끌 우수한 인재상

(학술 및 연구분야)의 대통령상을 받고, 연구능력을 인정받아 졸업과 동시에 호주정부 초청으로 멜번대학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은 바 있다. 학생 복지 측면에서는 전체 등록학생의 1/3이 장학금혜택을 받고 있고, 전체 학생의 약 45%가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으며, 상설 동아리방 등 갖가지 학생복지 시설들은 2002년도에 시행된 의과대학인정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아주대학교의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및 글로벌 캠퍼스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작년부터 시작된 미국 의과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금년에는 7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자율선택실습기간 2개월동안 미국 스토니브룩 의대, 플로리다 의대 및 하바드 의대로 보내고 두명의 학생을 의과와 소아과에서 받아 교육을 시킨 결과 양자 모두 매우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동기간 동안 두명의 학생은 카메룬에서 열대 아프리카지역의 의료체험 및 의료봉사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의 자율선택실습기간의 확대가 절실한 바, 향후 미국과 같이 6학년에 실시하고 있는 자율선택실습을 국내 및 국외의 타병원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의료원 설립 10주년을 계기로 의과대학 향후 10년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2015년의 우리대학의 목표는 전국 3위권 진입이다. 이를 위하여 강의실, 연구환경, 학생 복지, 교육과정 등을 총체적으로 개선시키는 방안이 수립되고 있다. 향후 10년의 발전을 통하여 우리 대학은 미래의 창의적이고 훌륭한 인성을 갖춘 인재들의 꿈을 실현 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다.



간호대학으로의 도약에 함께 참여해 보세요



박지원 간호학부장

아주대학교 간호학부는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사, 능력을 발휘하는 간호사, 세계화를 추구하는 간호사를 육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교양과목과 기초과목, 전공과목을 구분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목표인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사로 키우기 위해 2학년이 되면 방학을 이용하여 사회봉사 실습을 2주간 실시함으로써 인간을 존중하고 타 직종을 이해하는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간호학부생만으로 구성된 봉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 노인과 함께 생활하며 봉사하게 함으로써 간호행위에 대한 가치와 참된 간호의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기회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또한 희망하는 경우 아주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해외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저개발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둘째 목표인 능력을 발휘하는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이론은 물론 3학년이 되면 아주대학교병원을 실습장소로 활용하는 최상의 실습여건 속에서 4명의 학생이 한명의 교수와 한 조가 되어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훈련받게 함으로써 임상현장에 임하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있다. 또한 4학년 마지막 실습으로 선택실습 과목이 있어 학생 스스로 관심분야를 선택, 실습하게 하여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최종 점검해 볼 기회를 갖게 하고 전공학문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학을 이용하여 「인명구조술」, 「보육실습」, 「교생실습」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보육교사 자격증, 보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목표인 세계화를 추구하는 간호사를 지향하기 위해 이미 아주대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학교

를 중심으로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추진하여 2005학년도부터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졸업 후 바로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미국간호사 자격시험인 NCLEX 강좌를 개설하여 취업의 문을 국내 뿐 아니라 국외로까지 넓혀 주려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수준의 간호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전문직의 필수요건인 연구자의 역할을 학부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게 졸업논문을 쓰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해 3학년 과정이 끝날 무렵 4~5명이 한 조가 되어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조별로 1인의 교수가 전담하여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지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간호학부에는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아 교육과 동시에 학생과 교수간에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입학하면서 지도교수가 정해지는 담임반 제도가 있어 4년간의 대학생활 뿐 아니라 졸업 후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필요시 수시로 상담과 조언을 요청할 수 있어 전문적 능력을 갖춘 간호사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주대학교 간호학부는 1998년에 첫 신입생이 입학한 아직은 젊은 대학이다. 그러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연속 100% 합격은 물론 전국 수석까지 배출하는 쾌거를 올려 우수한 대학임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부응하고자 현재 우리 학교는 간호학부가 아닌 단과대학으로의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128학점제를 도입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부전공을 선택하고 자율적인 학습 활동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생의 무한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열린 교육의 장을 준비하고 있다.



뉴욕의 여름

선 택 실습기간 동안 나를 포함해서 세 명의 학생들은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고, 한 달여의 기간 동안 그곳에서 응급의학을 선택실습 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교환학생인 우리 셋을 포함하여 본과 4학년 학생 7명 그리고 응급의학과 인턴 의사 10명으로 모두 20명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응급의학과 인턴들은 근무하기 시작한 첫 한달 동안은 수업위주의 교육을 같이 듣게 된다. 같이 공부했던 인턴들도 첫 근무기간이라 같이 수업을 들었던 것이다. 미국에서는 응급의학과나 외과 등의 인턴은 그 과를 전공으로 선택한 것으로 그 과만의 인턴이 된다.

짧지만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한 달 반 기간 동안 대부분 오전에는 수업, 오후에는 오전 수업 내용 관련 실습을 했다. 국소마취를 배운 날은 카데바(cadevar)를 대상으로 직접 국소마취 하고자 하는 신경에 접근하는 법을 배웠다. 흉관 삽입과 기도 삽관에 대해 배운 날은 마취된 양으로 배운 내용을 실습해 볼 수 있었다. 실습을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마네킹으로 다양한 환자들에 대한 접근방법을 실습하는 시간도 있었다. 호흡음 청진, 맥박 확인, EKG, 수액 정주 및 정주양 확인, 기도 삽관 및 요관 삽입, 그리고 삽관 후 적당량의 공기가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전신 시뮬레이션 인형은 각 상황 설정에 따라 실습하기에 너무나 적당했다.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인데, 이곳으로 한국의 모 대학교 교수님들이 응급의학 실습교육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잠시 오기도 했었다고 한다. 참고로 이곳은 그 지역에서 ACLS와 PCLS(Advanced, Pediatric cardiac life support certification) 과정의 수련과 자격증 배부를 담당하는 곳이다. 수업과정 중간에 우리는 그 지역 개원의와 다른 과 전공의 등이 참여한 ACLS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PCLS는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실습으로 오후 일과가 끝나면 수업 첫날 이미 정해져서 나누어진 스케줄에 있는 다음날 수업에 대한 예습 숙제를 하게 된다. 모든 수업이 이 숙제를 해왔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습을 해가는 것이 중요했다. 너도 나도 질문에 대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는 분위기에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가 완벽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이 분위기가 가장 힘들었다. 그러나 영어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진지하게 대해 주셨다.



▲ 학부장 겸 응급의학과 과장인 Dr. Schneibor와 함께
(좌측부터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조계희, 배지현, 김은진 학생)

우리가 주중에 머문 곳은 기숙사로 대학원생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Chapin이라는 작은 주택 마을이었다. 한 집에 방이 두 세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나는 인도에서 유학온 대학원생과 함께 방을 사용하였고, 이 방 친구 덕분에 빨래나 시장보기 등에 관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미국이 인종이 다양하다는 말을 익히 들어왔지만 이곳에 와서 보니 정말 다양한 인종을 접할 수 있었다.

주말 자유시간에는 가끔 학교에서 운영하는 무료 버스를 타고 인근에 있는 대형 할인점에 가거나 주로 맨하튼으로 가서 뮤지컬을 보았다. 한번은 금요일 수업이 예정보다 빨리 끝나 나이가가라 폭포에 갈 수도 있었다.

미국에서 보낸 한 달 반 동안의 여정은 즐거운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 중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다. 영어로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 가 보라고 권하고 싶다.

조 계 희 학생 / 의학부 6년

다시 기회가 온다면 또 도전하고 싶다

올 해 7월 초부터 8월의 6주간 한 여름을 미국 플로리다의 Gainesville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보냈다. 게인즈빌은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 중 하나인 University of Florida를 중심으로 생긴 캠퍼스 도시로 넓고 소박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다. 여기서 내가 실습한 곳은 플로리다 대학병원인 Shands Health Care Center의 순환기내과 파트였다. Shands병원은 입원환자는 600침상 규모로 많지 않지만 학생들과 레지던트들의 수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잘 짜여 있고 진단, 치료, 연구를 위한 시설이 풍족한 좋은 병원이었다.



▲ 플로리다 대 Shands Health Care Center 순환기내과 구성원들과 함께
(우측 첫번째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황윤호 학생, 세번째가 김현경 학생)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인턴과정이 따로 없고 의대생은 본과 4학년이 되면 원하는 과를 돌며 환자를 보다가 졸업하면 레지던트에 바로 지원하게 된다. 환자를 직접 돌보는 것이 처음이고 영어도 시스템도 익숙하지 않아 일하는 건 더디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순환기내과 사람들은 의사든, 환자든 친절하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고 응원해 주었다. 자기 환자를 보면서 실습하게 되니 자연 실습은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시키지 않아도 회진 돌기 2시간 전부터 나와서 회진을 준비해야 했고 모르는 것은 알아낼 때까지 책을 뒤지고 선생님들한테 물었고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그만큼 많은 것들을 경험으로 배우게 되었다.

그들은 1년차 레지던트든 교수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거의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바보 같은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해줬고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날 프린트 자료를 주면서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회진 때도 신체검사를 훨씬 자세하게 할 뿐 아니라 난 그때서야 심잡음을 좀 이해할 수 있었다. 같이 회진 도는 모든 사람들(학생들, 레지던트 4명, 펠로우 1명)에게도 그 소견을 확인할 기회를 주었고 틈틈이 진행되는 질환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그래서 환자는 10명도 안되는데 항상 회진은 몇 시간이나 걸렸다. 자기가 생각하는 진단과 치료법을 주장하기 위해 학생이든 연차 높은 레지던트든 회진 중간에 자기가 뽑아온 자료를 돌리고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모습, 그리고 그걸 진지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분위기와 시간적인 여유,

그런 것들이 부러웠고 배우고 싶었다.

또 한가지 환자에게든, 아랫 사람에게든, 간호사 등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했던 태도도 잊고 싶지 않다. 환자의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환자에게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자연스럽고 농담 거는 모습이 좋았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에 대한 높은 존경과 신뢰를 갖고 있었고 미국에서 문제되는 의료소송은 일부의 이야기인 듯 싶었다.

짧지만 절대 잊고 싶지 않은, 앞으로 내가 바라는 의사상을 그리는 데, 또한 한국에서 부족한 것들을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번 미국실습에서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나중에 병원에 나가게 되었을 때 실천하고 싶은 바람이다. 학교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 특히 이윤환 선생님, 왕희정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후배들과 우리 학교, 병원을 위해 이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하고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꼭 가고 싶다. 그래서 그 기회가 생겼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싶다.

김 현 경 학생 / 의학부 6년

오! 나의 아프리카, 아프리카!

어린 시절부터 「아프리카」라는 단어는 나에게 있어서 언제나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신비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동경 ... 이런 나에게 지난 여름 아프리카에서의 1개월 간의 봉사실습은 그러한 기대감들을 현실화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나는 일정에 따라 아프리카의 카메룬, 그 곳에서도 아주 시골이라 할 수 있는 「쿵바」라는 지역에서 봉사실습을 할 수 있었다.

내가 있었던 쿵바라는 지역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주민들의 사는 모습은 대략 우리네 6·70년대와 흡사하며, 밤에는 언제나 정전이 되고, 샤워 하다가 물이 끊기기도 하는 등 전반적인 사회 재반이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 곳에서의 주요 일정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기본적인 외래환자 진료 및 입원환자 파악 등이었다. 이러한 일정들은 실습기간에 이미 익숙해 있던지라 그다지 어려움 없이 잘 수행할 수 있었다.

한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바로 통일된 공용어의 부재를 뽑을 수 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데, 다양한 강대국들에 의한 식민지 경험과 수많은 부족언어들에 의해 생긴 것이다. 예를 들자면 카메룬 정부의 정식 공용어는 불어지만 내가 있었던 쿵바에서는 영어를 더 많이 사용했으며, 또 다른 지방에서는 독어나 이태리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쿵바지역에서 사용되는 영어도 발음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 발음들에 익숙해 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주중의 일정이 끝나고 나면 주말에는 근처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었다. 근처를 여행하면서 볼 수 있었던 수많은 자연의 아름다움은 뭐랄까? 영화 「쥬라기공원」에 나오는 배경을 연상해 보면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높이를 알 수 없이 드높은 나무들과 맑은 호수들은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자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림베」라는 해수욕장에서는 검은 해변을 볼 수도 있었고,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산도 볼 수 있었다. 그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서니 불연듯 「겸손」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처음 카메룬에서 이들의 발전되지 않은 사회생활을 보며 교만하던 내 자신이 어찌나 부끄럽던지 글을 쓰는 지금 순간에도 얼굴의 달아오름이 느껴질 정도다.

그 곳에서 친구 여럿을 만들 수 있었다. 그 곳 의사의 사촌, 병원 매



▲ 카메룬 의료진과 함께
(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오동균 학생)

니저, 검사실 기사 등. 나이는 비슷하거나 많이 달랐지만 좋은 친구로 일정이 끝난 오후에는 함께 맥주병을 높이 들 수 있었다. 가끔은 친구들의 집에 초대 받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것이 지금도 즐거운 웃음을 짓게하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처음 검은 피부와 다른 언어에서 느껴졌던 이질감은 어느새 많이 희석되었다.

카메룬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많은 의학적 지식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잊고 있었던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여유」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가진 것 없고 힘든 삶을 사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음악소리만 들리면 영덩이를 흔들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 언제나 바쁘게 생활하는게 익숙한 나에게겐 참으로 의아한 광경이었다. 물론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결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을 틀어 놓고 영덩이를 흔들며 가만히 생각해 본다. 언젠가 나에게 아내가 생기고 자식들이 생기면 다시 찾아갈 것이다. 그 곳으로 ... 여전히 신비롭고, 그리고 여유로운 그곳. 아! 아프리카!

오동균 학생 / 의학부 6년

환자를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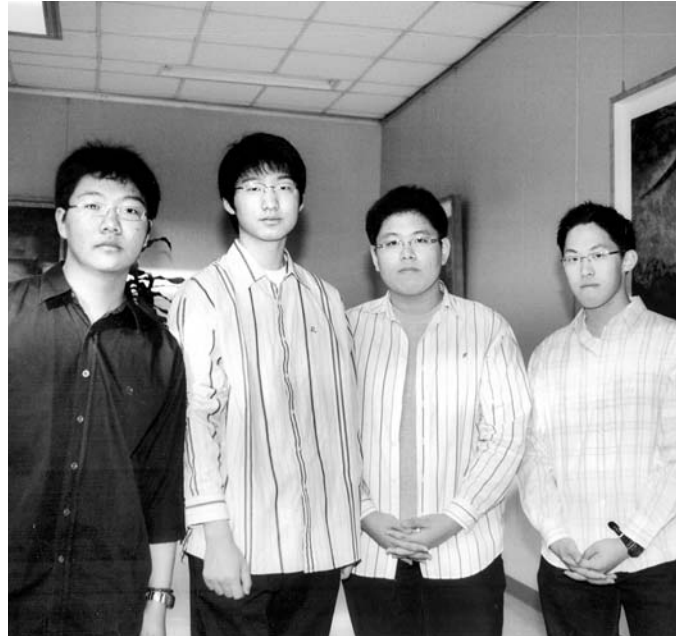
9월말,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병원체험을 한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나는 8월4일 그 긴장됐던 시간이 다시 떠올랐다. 187.25대1의 살인적인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던 날! 그 날의 감동이 다시 활활 타 오르면서 나는 한껏 기대에 부풀었고 창밖에서 들리는 앰블런스 사 이렌 소리마저 평소와 다르게 들렸다. 10월11일 병원이란 곳을 환자 자격이 아닌 또 다른 자격으로 들어와 본다. 전엔 느끼지 못하던 따뜻한 사람들의 냄새가 난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진단방사선과는 지원사격부대였다. 다른 여러 과에서 필요한 자료를 후방 지원하는 곳. 그렇지만 ANGIO방에서 본 여러 시술들은 나의 이런 생각들을 확실히 뒤집어 놓았다. 단순히 사진만 찍는 곳이 아니었구나.

순환기내과에선 두 번째날 학회에 갔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솔직히 고 3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는가? 그저 이런 학회에 와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격했다. 발표가 모두 영어라서 중간 중간 몇 개 단어를 들으면서 이해를 해보려 했지만, 역시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날 하루동안 난 많은 것을 얻었다. 가슴 속 가장 소중한 공간에 활활 타는 「목표」와 「의지」라는 녀석을 심어버렸으니까.

외과에서는 회진을 돌 때마다 따라다녀야 했다. 덕분에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었다. 이 때는 내가 받을 다친 상태라 회진돌 때 따라다니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다. 하지만 생사의 길에서 괴로워하는 수많은 환자들 앞에 내 발의 상처는 티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환자들 앞에서 내가 받을 아파하는 것이 사치스럽다고 여겨질 정도였으니까. 난 내 두 다리로 멀쩡히 그분들 앞에 서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었다. 또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수술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오래 메스로 길게 그어서 회복할 줄 알았는데 기계로 살을 조금씩 태워가면서 무척 섬세하게 집도를 하셨다. 긴 시간동안 한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집중력에 또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그 수술 장면을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4시간가량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에 스스로 놀라웠고 혼자서 「이게 정말 내 밥줄이 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될지 어느 누구도 모른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이번 2주 간의 병원체험은 상



▲ 병원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한 수시1차 합격 친구들과 함께
(왼쪽에서 첫 번째가 김경모 학생)

당한 정신적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이 짧은 내 삶 동안에 한번이라도 있었던가?」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이러한 병원체험의 기회가 나에게 돌아왔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촬영했던 드라마 「해바라기」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의사는 환자를 향해있는 해바라기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내가 6년 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갈 때, 이 말을 내 인생의 지표로 삼고 살아갈 것을 약속한다.

김 경 모 / 인천 계양고 3년(의학부 수시 1차 합격생)

지금 알고 있는 걸 그 때도 알았더라면

썩 썩 내리쬐는 햇빛이 그리운 지금, 내 마음 속 어딘가에서 따뜻함
을 만들어 주는 소중한 기억 하나를 고이 펼쳐 본다. 류시화 시
인의 詩 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 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시처럼 내
게 다가왔던 아름다운 경험 ….

내가 보름간의 시간을 보냈던 전라남도 순천시의 성가롤로병원은
아주대학교병원과 협력관계로 개인이 희망할 경우에 봉사실습을 나갈
수 있는 곳이다. 내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정신과 선생님께서는 정신과
는 아직 배우는 과정인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신 뒤, 앞으로 일하기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ICU로 배정해 주셨다.

ICU라 …, 아직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실습 한 번 나가보지 않은 학
생이 그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지, 혹시 잘못해서 학교 망신을
시키는 건 아닌지, ICU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 내 머릿속은 그렇게 복잡
해져 있었다. 그 곳의 모습은 16개의 침상이 모두 찬 상태였고, 대부분
의 환자분은 나이가 많으셨으며 한쪽은 MRSA, 결핵 환자분들이 계셨
다. 모든 분들이 그러셨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의 양손은
억제대에 묶여있고 초점 없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계신 모습을 본 순간
내 머릿속은 복잡한 상태에서 그만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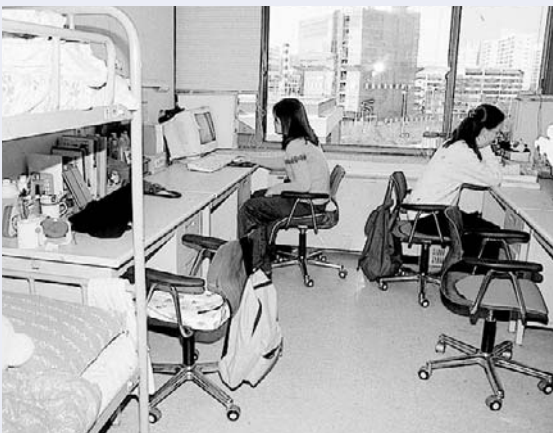
첫 날 하루 종일 반복됐던 생각들은 역시 내가 어리다는 것을 알게
했다. 그 분들은 비록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할지도 모르지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사람이 스스로 숨을 쉬

기 힘들어서 기계를 통해 호흡을 하고, 멍한 눈으로, 거친 숨소리로 자
신을 표현하는 그 분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을 깨닫게 됐다. 아니 너무나 힘들어서 조금씩 자신의 수명을 다하다
그렇게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는 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냥 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됐다. 그리
고 그렇게 가신 환자분들의 짐을 정리하다 보면 고이 접어놓은 환자분
들의 옷을 본다. 처음 그렇게 옷을 정리해 놓으셨을 때 보호자분들은
다시 그 옷을 입고 퇴원하실 날을 기다리셨을텐데 ….

환자분들의 생명의 길 끝에서 불안해 하는 보호자들에게 내가 할 수
있던 것은 겨우 같이 설명 듣고, 「할머니,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안정하셔야 해요.」 하며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정도였지만 그 작은 것 하
나에 감사해 하시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때로는 너무 귀찮고,
오랜 기간 병원생활로 배인 이상한 냄새와 감염 위험성 때문에 거리감
을 두고 탄생을 피운 적도 있다. 하지만 언제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외과계 중환자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 선생님들은 그 때마다
성의껏 환자분들을 대하셨고,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하셨다.

일에서는 냉정함과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서는 따뜻한 정이 함께 존
재하는 선생님. 「지선이 학생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시며 잘못
을 지적해 주시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재미있게 일하시던 선
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간호의 길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

좋은 시설, 쾌적한 환경



지방출신 학생과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기숙사 입사는
많은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별관 3, 4층에 위치한 쾌적한 환경의 기
숙사는 의대의 교과과정 특성을 살려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며, 목욕실, 세탁
장과 각실의 전화기는 물론 개인당 인터넷 전용선을 갖추는 등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좋은 환경 속에서 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놓
았다. 또한 1,408.26㎡ 규모에 244석의 자료 열람석을 갖춘 의학문헌정보센
터는 3만 3천여권의 의학도서를 갖추고 완전 개가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3,000 여종의 국내외 학술지(Paper/Online Journal), 각종 의학관련 DB를 구
독하여 학생들의 수업 및 교원들의 진료,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과
수업과 각종 과제작성, 정보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50대의 컴퓨터와 프린트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 실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송재관(의과대학) 지하에 위

다. 그 당시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그 곳에서의 깨달음을 통해 절대 포기해서는 안되고, 포기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때로는 너무 힘이 들 때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곳에서의 모습을 떠올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다듬는다. 너무나 행복한 2주의 시간이었기에 떠나기가 아쉬워 연장해서 했고, 자꾸 내려오는 눈꺼풀을 있는 힘껏 다시 올리며 견뎠던 마지막 3일간의 밤 근무는 특히 더 잊을 수 없다. 어떤 선생님께서 「돈 안 벌어도 좋으니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세상에 그런 날이 정말로 올 수 있을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 때도 알았다더라면 좀더 잘 하고, 조금 더 도와드리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었을텐데 흔히 후회할 때 쓰는 말의 형태이지만 때로 이것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가능성의 작용을 하게 할 수도 있다. 다음에 다시 그런 날이 오면 그 때는 지금만큼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곳에서 만났던 4개월 된 아기부터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셨던 할머니까지 모든 환자분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지선 학생 / 간호학부 2년



치한 최신식 카페테리아인 「선인재」는 집에서와 같은 식단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나마스테... 지울 수 없는 히말라야의 미소

1학년 여름, 중국 땅을 처음 디더 보면서 세상이 넓고 넓음을 아주 조금은 실감할 수 있었고, 그때 다짐했다. 「대학생활에서의 방학을 그냥 보내지 않으리라. 어디든 낯선 땅을 밟아보고 느껴보고, 내 인생을 보석같이 만들어 가리라.」 3학년 겨울방학을 맞으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नेपाल 해외봉사활동은 나에게 중요한 기회였다.

팀이 구성되어 출발하기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우리 학교 국제대학원에 다니는 नेपाल인 유학생 수메디와 नेपाल어 공부를 하고, नेपाल의 아이들과 함께 할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학부 특성상 타 학부 학생들과는 중앙 동아리가 아니면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다양한 학부의 사람들을 만나 보니 내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저 주어진 공부와 주어진 진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를 계발하면서 대학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नेपाल 해외봉사의 목표를 「봉사, 경험 그리고 진로에 대한 탐색」이라고 나름대로 정하고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고 오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네팔의 첫인상은 국제공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초라하고 허술했다. 우리나라 보육원과 비슷한 시골의 호스텔에서 위생교육, 풍선아트, 한국소개, 인형극, 페이스페인팅, 운동회 등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하였지만 계획한 것과 실제 상황은 다른 것이 많았다.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문득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이 조금 고단하다고,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이와 벼룩이 옮을지도 모른다고,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눈맞춤을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해보아야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했는데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어쩌면 내가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더 있다면 네팔 시골의 모습이 다.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돌부리에 발톱이 깨져도 그대로 또 흙바닥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아무 물이라도 있으면 끓이지도 않은 채 식수로 쓰는 사람들, 잠 자는 곳과 동물을 키우는 곳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거 공간, 태어날 때부터 이와 벼룩에 물리는 것은 예사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어디가 아파도 변변히 치료 받을 곳 하나 없는 시골. 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느꼈다.



봉사일정을 마치고 우리 팀은 2박 3일 동안의 짧은 트레킹을 하였다. 그 때 본 히말라야는 그저 사진 속에서 봤던 히말라야가 아니었다. 일몰 때와 일출 때 보았던 안나푸르나와 마차푸추레의 장관과 처음으로 같은 팀의 친구들과 밤을 새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신이 가진 꿈에 대해 이야기했던 시간이 기억 난다. 낯선 이국 땅에서, 서로의 꿈을 나누며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얻은 것이 이번 네팔 행의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수확이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네팔의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싫어 내내 창밖을 내다 보았다. 네팔에 도착한 날 보았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내 마음은 사뭇 달랐다. 짧게나마 경험한 네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속 고민할 것이다. 나 하나,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더 넓은 사람이 되기를 다짐한다. 그리고 기억해야지. 「나마스테 - 나는 당신 안에 계신 신께 예배를 드립니다.」하며 웃음을 보이던 그 사람들을...

강 한 나 학생 / 간호학부 4년

나를 발견하고 꿈을 키워갈 대학생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내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술연구활동 및 의료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의과대학 학생회는 의학부 학생회, 간호학부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편집회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에 건의하여 대학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학생회에서는 신입생에 대한 의과대학 자체 오리엔테이션, 3개 의과대학(아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체육대회, 의과대학 축제, 봉사활동 등 학생들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는 13개의 동아리와 8개의 소모임이 있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의과대학 동아리 외에도 아주대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60여개의 동아리와 90여개의 소학회에도 참여 가능하다. 의과대학은 각각의 동아리마다 담당 지도교수를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의과대학 지하 1층에 동아리 전용공간을 마련해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Six Lines** Six Lines는 9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대중음악 동아리로, 다양한 음악을 듣고 연주한다. 매년 3월에 Spring-Live와 10월에 축제공연, 가을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 **태줄** 태줄은 정기공연, 새내기 축제공연, WorkShop 공연 등 년 3회의 공연을 실시하는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극 동아리이다.
- **CMF** 한국 누가회(CMF Korea)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의 유일한 기독교 동아리로, 매주 Chapel 소그룹 성경공부를 실시하고 교내 선교활동 및 의료사회 복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함사랑** 함사랑은 97년 소금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여 99년 5월 이름을 변경한 봉사 동아리이다. 함사랑은 학생 뿐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등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Papyrus** Papyrus는 91년 문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 창단한 독서 동아리로, 독서토론을 통해 유대를 강화해 가고 있다.



- **ARTISTS** ARTISTS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10월 축제시 정기 전시회를 개최한다.
- **ORBIT** ORBIT는 사진찍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진 동아리이다.
- **메디콤** 메디콤은 컴퓨터 공부를 함께 하는 컴퓨터 학술모임이다.
- **S.O.S** S.O.S는 침묵의 소리라는 뜻의 수화 봉사 동아리이다. 1주 1회의 정기모임을 통해 수화를 배우고 봉사활동과 수화발표제를 한다.
- **아메바** 아메바는 농구 동아리로, 매주 농구게임을 실시해 건강을 지키고 있다.
- **Medic Chamber** 클래식 음악동아리인 Medic Chamber는 악기를 배워 진정한 음악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동아리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다.
- **사랑나눔봉사단** 한 달에 한 번 인근 양로원을 방문하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건강체크, 산책, 목욕 봉사, 레크레이션 등으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간호학부 봉사동아리이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아주대학교병원과 美軍

오산 미 공군 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이 1994년 9월 협력관계를 체결한 이후 10여년간 상호신뢰와 우의를 지켜오며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홍창호 병원장이 미 공군 병원 Dr. Richard D.Trifilo 대령의 부임을 축하하고자 미 공군 병원을 예방했으며, 이에 대한 답방으로 최근 Dr. Richard D.Trifilo 대령을 비롯한 일행이 아주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단 일행은 외국인 진료센터를 비롯하여 핵의학과 PET CT 실, 진단방사선과, 응급의료센터, 집중치료실 등 병원 곳곳을 둘러보고, 아주대학교병원과 더욱 협력해 갈 것을 약속했다.

오산 미 공군 병원은 아주대학교병원 개원 이후 꾸준히 상호 협력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병원으로, 아주대학교병원은 미 공군 병원에서 의뢰하는 미 공군 및 그 가족,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 공군에서 매주 2회 운행차량을 통해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 주고 있어 그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미 공군 이외에도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2003년 7월21일 용산 미군기지의 수도권 이전을 앞두고 미 육군 의무사령부와 진료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아주대학교병원은 미 육군 병원에서 의뢰하는 미국 국방성 현역 군인과 퇴역 군인 및 군인 가족, 국방성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인력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는 한편, 주한 미군부대나 요원들에게 발생하는 테러나 대량사고시 응급진료와 의료지원을 제공하며, 꾸준히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아주대학교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외래환자의 경우 매일 평균 5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입원환자도 130~150명에 이르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미군을 비롯하여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2월 병원 1층에 전문적인 외국인 진료센터를 확장·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의 진료접수 및 안내, 통역에 이르기까지 진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통괄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창호 병원장은 『아주대학교병원은 외국인 환자에게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미 육군 기지가 이전하면 미 육군 병원의 협력병원으로서 아주대학교병원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료원 ▶▶▶

박명철 제2진료부원장, 총 1천만원 발전기금 기부



박명철 제2진료부원장(성형외과학교실)이 지난 2002년 12월, 300만원의 의과대학 교육·연구동 건축기금을 기부한데 이어 11월22일 700만원을 추가 약정하여 총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박명철 진료부원장은 「의료원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추가 약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4회 관절염센터 심포지엄 개최



관절염센터는 지난 11월11일 목요일 오후 7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회 관절염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개원의를 비롯하여 골다공증에 대해 관심 있는 200여명이 참석,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박해심 교수가 좌장을 맡아 「관절질환과 골다공증」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내분비대사내과 정윤석 교수가 「골다공증의 약물치료」에 대해,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서창희 교수가 「관절염과 골다공증」에 대해, 정형외과 원예연 교수가 「골다공증에 따른 골절」에 대해 발표했다.

11월 월례회 실시



의료원은 11월23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6시30분까지 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11월 교직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11월 월례회 1부에서는 10월 모범교직원으로 선정된 10층 동병동 윤완흥 간호보조원을 시상하고, 이어 2부에서는 정신과 의사이자 「풍월당」 대표를 맡고 있는 박종호 강사를 초청하여 「오페리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교양특강을 실시했다.

의과대학 ▶▶▶



박기현 교수, 최우수 학술상 수상

이비인후과학교실 박기현 교수가 「2004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상은 그동안 학술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학회 기여도가 높은 사람을 선정, 시상한 것으로, 박기현 교수는 학술상의 상금 3백만원을 지난 11월11일 의과대학 교육·연구동 건축기금으로 기탁했다.



여말희 연구강사, 젊은 과학자상 수상

간 및 소화기질환 유전체 연구센터 여말희 연구강사가 지난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Human 프로테오믹 학회(HUPO 3th Annual World Congress Beijing 2004)에서 젊은 과학자상 및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내용은 「Restoration of heat shock proteins suppresses gastric mucosal iNOS expression induced by H.pylori」로, 여말희 연구강사는 젊은 과학자상의 상금 1,000불을 11월15일 월요일 의료원 운영위원회에서 의과대학 교육·연구동 건축기금으로 전달했다.

한편, 간 및 소화기질환 유전체연구센터 이지현 연구원도 같은 학회에서 「Blockage of HSP 90 modulates H.pylori induced IL8 productions」를 발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다.

외과학교실, 우수논문 발표상 수상

외과학교실 김명욱, 조용관, 한상욱 교수, 김홍 연구강사, 송승규 전공의가 지난 11월20일 대한위암학회로부터 제3회 아벤티스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논문 제목은 「조기 위암의 림프절이 임상병리학적 인자 분석」이다.

**일본동물세포기술학회 기조강연 가져
— 김승업 교수**



의과대학 뇌질환연구센터 (SRC) 김승업 소장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일본동물세포기술학회에 참석, 「인간 신경줄기세포와 뇌질환 세포치료」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실시했다.

병원 ▶▶▶

아동보호팀 구성 1주년 평가회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우수 학대아동보호팀 감사패 받아

아주대학교병원 학대아동보호팀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우수 학대아동보호팀으로 선정되어, 지난 11월17일 수요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지난 2003년 11월19일 개최된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발대식」 1주년을 맞아 그동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 온 학대아동보호팀을 선정하여 시상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모니터링 실시 결과 32개 종합병원 중 아주대학교병원 학대아동보호팀이 가장 우수한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02년 3월부터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의료비 지원협약을 맺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피해 아동에게 본인 부담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총 23건의 아동 학대 사례를 발굴, 치료 및 의료비 지원을 실시해 왔다.



유방클리닉, 암 환자를 위한 세미나 개최

유방클리닉은 11월23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별관 대강당에서 「암 환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과 정용식 교수가 「유방암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 예방의학교실 이은현 교수가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해 강의했으며 특히, 이날 유방클리닉은 임상연구자인 주선희 박사를 초청하여 「인상학」에 대한 특강을 실시,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환자 보호자를 위한 안데스 전통음악 연주회 개최

병원은 2004년 한 해를 보내면서 11월24일 수요일 오후 6시30분 병원 1층 로비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안데스 민속음악을 연주하는 페루인 5명으로 구성된 그룹 Winay(위나이)를 초청하여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에서 전해져 온 안데스 음악 및 전통음악을 연주,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투석환자를 위한 신장이식 설명회 실시

신장내과와 외과에서는 지난 10월31일 일요일 오후 2시 지하 1층 아주홀에서 투석환자를 위한 신장이식 설명회를 개최했다.

60여명의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들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장내과 김흥수 교수와 외과 오창권 교수가 ▲ 투석과 이식 ▲ 이식의 절차 및 경제성 ▲ 이식대기자 현황 및 전망 ▲ 이식 후 생활 ▲ 신장기증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신장을 이식한 환자와 신장 기증자가 참석하여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 및 소화기질환 유전체연구센터, 보건복지부 현장평가 받아

간 및 소화기질환 유전체 연구센터는 지난 11월9일 화요일 보건복지부 현장 방문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는 14명의 보건복지부 평가위원이 방문하였으며 지하 1층 수석홀에서 김효철 의료원장을 비롯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1단계 연구실적 평가가 이뤄졌으며, 이후 유전체 연구센터로 이동하여 앞으로의 연구진행을 위한 2단계 현장 방문 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평가위원들은 유전체 연구센터의 연구실적 및 계획에 대해 흡족한 반응을 보였으며, 좋은 평가결과가 기대된다.

시설관리팀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봉사 실시

시설관리팀은 지난 11월13일 토요일 장애인 재활센터인 「바다의 별」에서 2차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최영 행정부원장을 비롯하여 시설관리팀 직원 13명이 참가, 주방 내 전기 과부하 시설 분리공사를 실시하고 지하 천장의 노후 텍스를 교체해 주었다.

또한, 전층 화장실에 누수방지를 위해 실리콘으로 방수처리 작업을 하고, 각종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보수하였으며 고장난 유도등 20여개를 교체하고 옥외 김장독을 묻어주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의료원 교직원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실시

의료원은 교직원의 건강증진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지난 11월16일과 17일, 11월25일과 26일두차례에 걸쳐 병원 지하 1층 수석홀과 주사실에서 교직원 2,170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이번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 사정에 의해 백신 수량이 지연돼 예년에 비해 접종시기가 늦어졌으나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아토피 피부염 시민강좌 안내

피부과는 소아,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피부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아토피 피부염 시민강좌는 오는 12월17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피부과 이은소 주임교수가 「아토피 피부염의 약물치료」에 대해, 소아과 이수영 교수가 「소아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강연한다.

- 일시 : 12월17일 금요일 오후 2시
- 장소 : 아주대학교병원 지하 1층 아주홀
- 문의 : 피부과 외래 ☎ 031-219-5917

이광현 기사장, 경기도 방사선사협회장에 선출



진단방사선과 이광현 기사장이 지난 11월27일 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개최된 경기도 방사선사협회 제40차 정기총회에서 제19대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이 날 총회에서 진단방사선과 이우영 방사선사가 「방사선 종사자 및 타 직종 종사자의 1일 운동량 비교」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우수 학술상을 수상했으며, 이승배 방사선사는 경기도회 모범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이광현, 이우영, 이성영, 이경준 방사선사가 공로상을 수상했다.

신문.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10.29	중앙일보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제철 만난 가을 과일
11.3	한겨레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	수능 D-14 아침밥 빼먹지 말자
11.4	경기일보	내분비대사내과 이관우 교수 외과 소의영 교수	암을 이기자(11) - 갑상선암
11.11	경기일보	응급의학과 조준필 교수	안전,건강도시 정책개발 심포지엄
11.11	경기일보	소화기내과 이광재 교수 외과 서광욱 교수	암을 이기자(12) - 대장암
11.12	한국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신경외과 안영환 교수	줄기세포치료제 첫 임상시험
11.17	조선일보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스타와 질병 - 부사家 갑상선 기능항진증
11.18	경기일보	산부인과 유희석 교수 산부인과 정기홍 교수	암을 이기자(13) - 자궁경부암
11.19	경인일보	재활의학과 임신영 교수	우리 아이 목이 기울었어요... '사경' 치료법
11.25	경기일보	비뇨기과 김세중 교수	암을 이기자(14) - 신장암
11.29	경향신문	성형외과 박명철 교수	한번 흉터 평생 상처될라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11.10	KBS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	매운 맛 위장장애 일으킨다?
11.23	KBS 생로병사의 비밀	이비인후과 정연훈 교수	난청주의보, 당신의 귀가 위험하다

아주사회사업기금

후원구좌 가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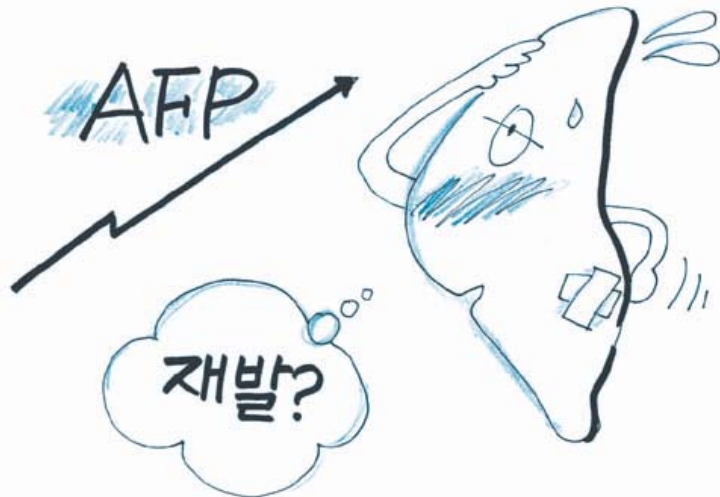
아주대병원 사회사업팀에서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및 재활용품 지원, 지역사회내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아주사회사업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지로계좌번호 7657236
- ▶ 은행무통장 입금
제일은행 692-20-116147
- ▶ 예금주 아주대학교의료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AFP 수치가 상승했다면 간암이 재발한 걸까요?



Q 작년 6월 간암 절제수술을 받은 37세 남성입니다. 12월 혈액검사 결과에서 AFP가 137로 상승하여 초음파검사를 하였으나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간암이 재발된 것은 아닌지, AFP가 상승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AFP는 간암조직에서 분비되는 종양 표지자입니다. 그러므로 AFP가 수술 후에 갑자기 137ng/ml로 상승한 것은 재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검사에서 다시 수치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암의 재발은 궁극적으로 전체 수술한 환자의 약 60%에서 일어나고 대부분이 간에 재발하므로 정밀검사는 간에 대한 초음파검사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초음파 결과 간에 별 문제가 없다면 향후 1~2개월 간격으로 2~3회 AFP의 변화를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반복해서 초음파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상이 없으면 PET-CT 검사를 통해 간 이외에 다른 장기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내 재발은 대책을 세워볼 수 있지만 간의 재발은 대개 대책보다는 증상을 완화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정도이므로 예후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과 왕희정 교수〉

'이갈이' 도 '보톡스' 로 치료한다면데 효과가 있나요?

Q

오래 전부터 수면 시 이를 심하게 갈고 있습니다. 옆에서 자는 사람은 물론이고 옆방에서도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보톡스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A

이갈이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지만 결국 턱뼈를 움직이는 근육(저작근)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치료법도 저작근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교합상은 저작근의 수축을 억제시킬 목적으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장치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등 근본 원인의 해결에는 어려움이 많은 반면, 교합상 치료만으로도 이갈이의 증세 자체는 호전됩니다.

보톡스 치료법도 최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역시 저작근의 일부를 인위적으로 퇴축시킴으로써 활성화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톡스 치료는 이보다는 미용성형의 목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치과 이정근 교수〉

치과 외래

031-219-5869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독자 여러분께 좀 더 유익한 의학정보지로 다가서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참여는 보다 나은 『아주대의료원 소식』이 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건강 Q & A / 나의 건강상식은

궁금해 하시는 건강문제에 대해 전문의에게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문의해 주시면 만족스러운 상담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우리 병원 어떻습니까

아주대병원 이용에 있어 느끼신 점 혹은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최대 200자 원고지 5매(A4 3분의 2장 정도) 이내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보다 좋은 병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 나누고 싶은 이야기 / Zoom & Zoom

아주대의료원 주변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 따뜻한 사연이 있는 분을 아주대의료원소식에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제보·원고 보내주실 곳

- 전 화 031-219-5368 • 팩 스 031-216-6386
- 주 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443-721)
- 이메일 apr@ajou.ac.kr



언제나 열려 있는 간 이식 상담 창구

간 경화가 진단되어 이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간장의 기능이 20~30% 정도만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장은 일반인도 잘 알다시피 60~70% 정도를 제거하더라도 기능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만큼 건강한 사람은 간장의 기능적 여분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다. 간경화로 증상이 있는 경우 이미 대부분의 기능은 소실되고 남은 기능 중 5~10%가 호전되면 증상이 소실되고 악화되면 증상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간경화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면 근본적인 치료(간이식)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다. 시간이 늦어 영양상태가 악화되고 체력이 소진되며, 신장 등의 타 장기 기능이 저하되면 간이식 수술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수행되더라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후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즉, 회복될 수 있는 조건에서 간이식을 조기에 현명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간이식에 대한 상담은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는 일차적으로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라는 장기이식 전문간호사가 언제든지 연락될 수 있도록 근무하고 있다. 병원 3층 외과 외래에 있는 장기이식 상담실에서 이식 환자의 상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31-219-5547 또는 016-9277-5376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면담일정을 의논할 수 있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는 이식 전문의의 외래 진료 시간에 환자 가족의 면담을 예약하여 통보하게 되며, 예약된 시간에 이식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 후에는 환자가 이식을 하는 데에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세밀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이식 전에 미리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검사는 약 2~3주 정도 소요되며,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면 시일이 더 소모되기도 한다. 검사상 이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급자를 찾는 과정이 진행된다. 공급자는 가족 중에 건강하고

자발적인 제공자가 있는 경우와 뇌사자의 장기를 제공받기 위한 등록절차를 하여 기회를 얻는 경우가 있다.

가족 중에 간의 일부를 제공할 자발적인 사람이 있는 경우 제공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대한 진료와 검사를 하게 되며, 검사는 마찬가지로 약 2~3주 정도 소요된다. 검사상 조건이 간 기증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간 이식 및 제공 수술일정에 대하여 이식 전문의와 논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뇌사자의 간장 기증을 위하여 등록절차가 필요한 환자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도와주고 등록된 사항을 환자와 가족에게 확인시켜 주게 된다. 일단 등록이 되면 우리나라 전국에 발생하는 뇌사자가 있을 때,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등록된 이식 대기자에게 뇌사자의 장기가 선정되며, 이식 대기자가 선정되면 아주대학교병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즉시 연락하여 이식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을 시작한다. 아주대학교병원 이식팀은 뇌사자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지 이동하여 장기를 적출 및 이송하며,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선정된 이식 대기자의 이식수술을 진행한다.

간경화로 인한 증상이 있는 환자는 시간이 지나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근본적인 치료에 대하여 상담이라도 하

여야 한다. 간혹 상태가 악화된 환자와 가족들이 미리 근본적인 치료(간이식)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늦기 전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하여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에게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하여 보자.



오 창 권 교수 / 외과학교실

제 목을 나누어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장기기증은 세상의 가장 값진 사랑입니다. 가슴시리도록 고귀한 이 사랑을 베푸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장기이식 TFT ·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문의전화 031-219-5547 | 016-9277-5376



최상의 진료, 이상적인 노인병원의 모델 오산노인전문병원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오산노인전문병원

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600병상 규모의 오산 신경정신병원의 탄탄한 기반 속에서 설립된 설백의료재단 오산노인전문병원은 오산시 궤동의 8천여평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353병상 규모로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노인성 만성질환, 노인성 정신질환, 노인성 신체질환, 가정의학과 등의 전문 진료과목과 사회사업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등 의료지원부문을 전문적으로 갖추고 24시간 전문 간병사를 두어 노인질환에 필요한 시설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 설립을 위한 계획 단계부터 강희백 이사장을 포함한 각 분야의 담당자들이 미국, 캐나다의 노인병원을 견학한 후 선진 시스템을 우리 실정에 최적화 시킨 오산노인전문병원은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들 가운데 국내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동시에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까지 배려한 가장 이상적인 노인전문병원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환자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시스템

오산노인전문병원은 치매환자가 전체 환자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대부분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한 이들 치매환자를 돌보는데 있어서 진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숙련된 간병이라는 사실을 절감한 오산노인전문병원은 잘 교육되어진 간병사들만 상주시켜 간병사 1인이 4~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게 하는 숙련된 간병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른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간병료보다 35% 이상 낮추어줌으로써 비용부담 때문에 노인환자 부양을 기피할 수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오산시 지역주민과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병원

오산노인전문병원은 오산신경정신병원과 함께 지역노인의 정신과 육체를 위한 상담 및 진료에 힘써오고 있다. 2001년부터 오산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진료와 상담, 간단한 검사, 치매검사를 통하여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예방사업에 힘써왔으며 2004년에는 정신건강의 날 행사에서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예방에 대한 사업을 오산시 지역에 있는 병원,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과 함께 추진하기도 했다.



좀더 전문적인 노인진료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아주대학교병원과는 2001년 12월부터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 노력을 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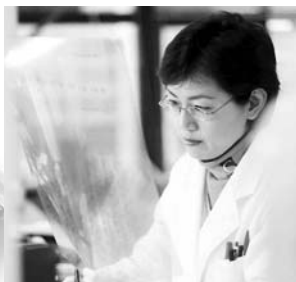
오산노인전문병원은 노인질환, 난치병의 치료연구 및 노인질환에 관한 치료, 연구, 개발을 통하여 복지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노인전문병원이 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 영 배 팀장 / OITM

최고의 의학명문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여러분이 키웁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을 위한 자리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조성

창의력이 있는 의과대학, 질병 연구와 치료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하는 저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신설되는 교육·연구동에는 첨단 연구시설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정보 교류와 협력, 시설의 공유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의 중심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총계

■ 우리 모두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의학발전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이 됩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 | | | |
|----------|------|-------------------|
| • 지로납입 | 전화신청 | 031-219-4000 |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 신청 후 후원회에 전화통보 |
| • 무통장 입금 | 거래은행 | 예금주 : 아주대학교의료원 |
| | 제일은행 | 692-20-166907 |
| | 한미은행 | 542-00896-248 |
| | 농협 | 116-01-060243 |
| | 국민은행 | 593501-01-082841 |
| | 우리은행 | 177-089499-13-102 |

● 후원내용에 대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주대학교 의료원발전 후원회 사무국(031-219-4000)으로 전화주시면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기금 모금 현황

구분	회원수	약정액	기부총액
월간	2명	14,050,770원	18,044,770원
누계	376명	1,906,226,301원	1,878,006,931원

성명	납입액	의료원과 관계
김남초	1,000,000	의학부 학부모
박기현	3,000,000	이비인후과학교실 주임교수
박명철	7,000,000	제2진료부원장
여말희	1,020,770	간 및 소화기질환 유전체 연구센터 연구강사
케이텍맨파워(주)	3,000,000	
교직원 분납분	2,994,000	(교직원 급여 공제)

(가나다순)
2004.10.26~11.29



제10회 희귀염색체 증후군 환자와 가족 모임가져



유전학클리닉은 지난 11월12일 금요일 오후 1시30분 지하 1층 이주홀에서 「제10회 희귀염색체 증후군 환자와 가족 모임」을 실시했다.

윌리엄 증후군, 프라더윌리 증후군, 묘성증후군 등 희귀염색체 증후군 환아를 둔 부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모임에서는 재활의학과 안동녀 언어치료사가 「염색체 증후군 아동의 언어발달」을 주제로 언어평가 및 치료에 대해 강의하고,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가 「염색체이상 증후군의 최신지견」에 대해 강의 및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증명서 발급 서비스 실시

아주대학교병원은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내원하지 않고 유선으로 의뢰 후 수신하기 편리한 곳으로 우편이나 팩스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입증명서 발급 창구 ☎ 031-219-4342

셔틀버스 운행 노선

병원 현관 → 아주대학교 정문(글사랑 서점) → 동양부페(우리은행) → 미소지움아파트 → 동수원사거리 삼성생명 → 동수원사거리 조흥은행 → 호텔캐슬 건너편 이화약국 → TG삼보컴퓨터(아주대 삼거리) → 국토지리정보원(팔각정 갈비 옆) → 병원 현관

평일 오전 8:30~오후 4:30(운행간격 : 30분)
토요일 · 공휴일은 운행 안함

클릭!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www.ajoumc.or.kr

전문클리닉 진료시간표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실 진료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4310 관절염 센터	강신영	5818		월	수부 및 상지외과	
	남동호	5902		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서창희	5818	화	월, 수, 금	류마티스 질환, 루푸스, 통풍	
	민병현	5543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척추외과	
	원예연	5542	월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수부 및 상지외과	
	김현정	5543	수		발목 및 발의 질환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실 진료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유전학 클리닉 5979	김현주	5903	화, 목	수	각종 유전질환, 유전성 암질환	
	김현주	5903	화, 목	수	유전상담	
통증 클리닉 5896	김찬	4331	월, 수, 금		삼차신경통, 더란증, 수족냉증, 대상포진후 신경통	
	한경림	4331	해외연수중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두통, 교감신경의숙증	
	일반진료	4332		월, 화, 목, 금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등 암생물종 기타	
유방 클리닉 4744	김명옥	4743		월	유방질환, 난지성 소화기 질환	
	정용식	4743	월, 화, 목	목*	유방질환	
	윤태일	4743	수, 금	목*	유방질환, 내분비 질환	*은 담포를 시술만 시행
학술 및 발달장애 클리닉 5814	신윤미	5814		화	소아·청소년 정신과, 발달장애	
	조선미	5814	금, 토(격주)	수, 금	심리검사 프로그램	

진료과명	의사명	진료실 진료번호	오 전	오 후	비고
소화기 내과	간암클리닉 5976	조성원 5969 정재연 5963 왕희정 5753 원재환 5863	월, 화, 목 금 금 해외연수중		화, 수, 목 화, 금
	순환기 내과	심부전 및 관막질환 클리닉 5717	신준현 5973		화
	호흡기 내과	여행자 예방접종 클리닉 4730	최영화 4730	월, 목	수
	알레르기 내과	벌독(곤충독) 알레르기클리닉 5902	박해심 5905 남동호 5905	월, 금 화	목, 금
정신과	공황장애 인지행동치료클리닉 5814	임기영 5810	화	목(19:00~21:00)	
피부과	안면색소클리닉 5917	강희영 5914	수, 금	월, 수(레이저치료) 목	
흉부외과	하지정맥류클리닉 5752	최호 5752	화, 목	화	
신경외과	뇌출혈 혈관내 수술클리닉 5664	신용삼 5664 김선용 5858	해외연수중 수		
성형외과	구순구개열클리닉 5614	박명철 5611	수		
	안면윤곽미용클리닉 5614	정재호 5612	화, 목	금	
산부인과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 5597	황경주 5597 김미란	월, 수, 금 화, 목	월 화, 목	
안과	콘택트렌즈클리닉 5673	양홍석 5671		화, 금	
	움직이는 의안클리닉 5673	문상호 5670		화(2주, 4주)	
비뇨기과	요실금클리닉 5585	최중보 5587	화, 금	수	
	야뇨증클리닉 5585	김영수 5586	수	금	
가정의학과	비만클리닉 5959	김범택 5957	월, 수, 목	금	
치과	인공치아이식클리닉 5869	이정근 5869 고석민	화, 목, 금		
	턱관절장애클리닉 5869	송승일 5869	수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04년12월1일 현재)

아주대학교병원은 토요일에도 특진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화기내과	조성원	5969	월, 화, 목		간질환	
	김진홍	5962	화, 금	수	위장관치료내시경, 웨·담도질환	
	함기백	5963	월, 목	화	위장질환	
	이광재	5963	화, 금	목	위장질환, 위장관 기능장애	
	유병무	5962	월, 수	금	웨·담도질환, 치료내시경	
	이기명	5963	수	월, 수	위장 질환, 대장질환	
	정재연	5962	금	화, 목	간질환	
	심성준			금	소화기질환	
	김중수			월	소화기질환	
	최준혁		수		소화기질환	
	임태영		수		소화기질환	
	최혜진			화	소화기질환	
순환기내과	탁승재	5973	화, 수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정혈관 중재기술	
	신준환	5975	월, 목	화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	
	황교승		목	월, 목	부정맥, 심전기생리검사, 전국도자절제술, 인공심박동기	
	윤명호	5975	화	목,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정혈관 중재기술	
	최소연	5975	금	화,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정혈관 중재기술	
	최태영	5975	금	월	고혈압, 심장질환	
	최병주	5973	화	수	고혈압, 심장질환	
	유상용		월		심장혈관질환	
	안성균			금	심장혈관질환	
	최정현	5973	수		고혈압, 심장질환	
호흡기내과	황성철	5967	월, 화, 수, 목, 금	목	폐암, 감염성폐질환, 폐결핵, 만성기침	
	박광주	5967	해외연수중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중환자치료학	
	최영화	4731	월, 목	수	발열, 감염질환, 예이즈, 예방접종, 결핵	
	신승수	5968	화, 수	월, 금	만성폐질환, 중환자치료, 폐암, 폐결핵	
	박주현		목, 금	월, 화	만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중환자치료, 폐결핵	
	오윤정	5968	월, 수	화, 목	호흡기질환	
	최영인			수, 금	호흡기질환	
내분비내과	이관우		월, 수, 금	목	당뇨병, 내분비대사질환	
	정운석	5961	화, 목	월, 금	골다공증, 뇌하수체질환	
	김대중	5955	월, 화, 목	수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갑상선질환	
신장내과	일반진료	5961	수, 금		내분비대사질환(재진만 진료)	★
	김홍수	4741	월, 화, 수, 금		만성신부전증,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신규태	5971	화, 목, 금	월	신장이식, 고혈압, 사구체신염	
	정혁준			화, 목	신장질환	
중혈액내과	송영수			수, 금	신장질환	
	일반진료					
	김효철	5992	수, 금		림프종, 골수종, 백혈병,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임호영	5991	월, 화, 목		식도·위장·대장·직장암, 각종 고형암	
	최진혁	5994	수, 금	월	두경부·식도·폐암, 유방암, 각종 고형암	
알레르기·비염·아토피내과	박준성	5992	월, 화	화, 목	혈액질환, 종양	
	장준호	5990	목	월, 수, 금	혈액학	
	일반진료			화, 수, 목, 금	각종 암 및 혈액질환	
	박해심	5905	월, 수, 목	수	천식, 알레르기질환	
내과	남동호	5905	화	화*, 목, 금*	천식, 알레르기질환, 류마티스, 루푸스, 통풍	
	서창희	5818	화	월*, 수*, 금*	류마티스 질환, 류마티스, 통풍	
	김상하	5905	목	화	기관지천식, 알레르기질환	
	일반진료			월		
	내과일반	5970	월~금	월~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아과	홍창호	5620		수, 금	청소년 질환, 성장과 발달	
	김성환	5616	화, 목, 금	월	신경계질환, 간질, 발달장애	
	배기수	5623	월, 화, 목	목	신장질환	
	이수영	5623	수, 목	월, 화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박문성	5617	월, 수	화, 금	미숙아, 신생아질환	
	정조원	5621	화, 금	월	신장질환	
	홍진순		월	화, 목, 금	소아내분비 및 유전대사 질환	
	박준은		화, 목	화, 목	소아혈액·종양질환	
	석효정		월, 화	월, 금	소아일반질환, 알레르기·내분비질환	
	유재은		금	화	소아일반질환, 신생아질환	
	김연희		수	목	소아일반질환, 신경계질환	
	일반진료		목	수		
토요일은 특진 1명, 일반 1명의 의사가 주마다 교대로 진료를 합니다.						
신경과	허균	5659	화, 수	월, 목	간질, 치매, 뇌혈관질환	
	주인수	5653	화, 목	월, 금	뇌졸중, 척수, 근육 및 말초신경질환	
	방오영	5657	월, 금	화, 수	뇌졸중, 치매	
	이필휴	5657	월, 목	화, 수	뇌졸중, 파킨슨병, 운동장애	
	일반진료	5657	수, 금	목, 금	신경계질환	
정신과	정영기	5811	월, 수, 금	화	우울증, 스트레스 관련 장애	
	임기영	5810	화	수, 금	불안장애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이영문	5810	목, 금	월, 목	정신분열의 재활치료, 우울증	
	노재성	5811	수, 목	월, 금	우울증, 조울증 및 신경성 신체장애	
	신윤미	5812	월, 금	화, 목, 금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 자폐안정장애	
	일반진료		화	화, 목		
피부과	이은소	5912	월, 화, 목	수(예약), 수	건선, 여드름, 베체트병(화·레이저치료)	
	김유찬		월, 화, 목	화, 목(예약)	피부종양, 화학박피술(금·레이저치료)	
	강희영	5914	수, 금	월, 목(예약), 목	백반증, 무좀, 접촉피부염, 색소질환 (수·레이저치료)	
	이지연			월, 목(예약), 금	색소성 질환 (목·레이저치료)	
레이저치료	일반진료	5913	월~금	월~금	예약에 의함	
외과	김명옥	5761	월, 수		난치성 소화기(위, 담도, 췌장)질환	
	조용관	5756	화	화, 수	식도, 위장질환	
	소의영	5756	수, 금		내분비 질환, 두경부 질환	
	홍정	5754	화, 목		소아외과 질환(이형, 종양, 탈장, 배변기능장애)	
	왕희정	5753	금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담도	
	서광욱	5753	월(재진)	월(초진),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오창권	5756	월, 금	월, 금	장기이식외과, 혈관외과(월 10:00~15:00 Onsite Service)	
	김육환	5756	화, 목		간·담도·췌장 질환	
	한상욱	5754	수, 금	월	위·십이지장 질환, 복강경위수술	
	정용식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이국종	5753	목		외상외과	
	윤태일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일반진료	김홍			수, 목	위십이지장 질환, 급성복통	
	정인호		수		담도계 질환, 복강경 수술	
	김봉완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담도, 급성복통	
	안상익		수		두경부질환, 유방질환	

외래진료 접수시간 * 평 일 오전 8:00~오후 4:00
* 토요일 오전 8:00~오전 11:30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5546
- 응급의료센터 : (031) 219-60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명 담당의명	의사명	진료일 진료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흉부 외과 5717 5752	이철주	5749	금	화, 금	성인심장혈관외과	
	소동문	5750	월, 수	월	소아심장혈관외과	
	최 호	5750	화	화, 목	폐·식도의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이성수	5750		월, 수	폐·식도의과	
	일반진료	5750	목			
정형외과 5545	강신영	5544		월*, 목	수부 및 상지외상, 기형, 미세수술외과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수*	슬관절 및 건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목, 금		척추외과, 측만증, 최소침습수술	
	원예연	5542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월, 화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혈관신경외과	
	김현정	5542	수*	화,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전영수		월, 금	금	골연부조직 종양 및 외상학	
	조재호			월, 수, 금	소아정형(변형교정, 키늘리는 수술), 외상	
	정남수			금	정형외과질환, 외상학(탈구 및 골절)	
	박응석		목		정형외과질환, 외상학(탈구 및 골절)	
노정호		수		정형외과질환, 외상학(탈구 및 골절)		
신경외과 5664	조경기	5661	월, 목	목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홍	5662	수	월, 수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윤수한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뇌종양	
	안영환	5662	화, 금	금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방사선수술, 뇌종양	
	신용삼	5663	해외연수중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재적 치료	
	김세혁		수	수, 금	뇌종양, 뇌혈관 질환, 외상	
	심숙영		월	목	뇌종양, 외상, 일반신경외과	
하지순	5663	목	월	척추질환, 외상, 일반 신경외과		
성형외과 5614	박명철	5611	월, 수, 금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정재호	5612	화, 목	금	악안면부성형, 미용성형, 악안면부기형	
	박동하		토	월, 목	수부성형, 미용성형	
	정수우			화, 수	미용성형, 체형성형(비만)	
	일반진료	월-금	월-금			
산부인과 5597	오기석	5595	화, 목, 금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행수	5593	월, 금, 금	화, 금	고위험산모, 조음과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장기홍	5594	금	화, 수, 금	부인암, 복강경	
	양정인	5593	월, 수, 금	월, 목	고위험산모, 조음과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불임, 습관성 유산, 복강경	
	이정필	5595	월, 수	수, 목	부인암, 비뇨부인과, 복강경	
	김미란	5643	화, 목	화, 목	불임, 복강경, 미혼여성클리닉	
	일반진료	월-금	월, 수, 목, 금			
안과 5673	유호민	5669	월, 수, 금	월(예약), 금(예약)	망막, 유리체, 백내장	
	안재홍	5672	월, 화	금	녹내장, 백내장, 굴절수술	
	문상호	5670	금	화, 목	안성형, 백내장	
	장윤희	5672	목	월, 목	사시, 소아안과	
	양홍석			화, 금	각막, 백내장, 외안부, 렌즈클리닉	
	문찬식		화, 수(레이저 치료)	수, 금(레이저 치료)	망막, 백내장, 유리체	
		일반진료	5671	월-금	월-금	
이비인후과 5747	박기현	5742	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문성균	5742	해외연수중		중이염, 난청(유관성난청), 인공와우, 보청기	
	정연훈	5742	화(신경클리닉, 목(어암중))	금	난청, 어지럼증, 인공와우, 귀종양	
	김철호	5746	월, 목	수(수염클리닉)	두경부종양, 음성장애, 기관·식도 질환	
	김현준	5746	화, 금	화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오정훈		수	월, 목	비염, 부비동염	
	김병철		수	수, 금	비염, 부비동염	
이준호			월, 화, 목	난청, 중이질환		
	일반진료	월-금	월-금			

진료과명 담당의명	의사명	진료일 진료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비뇨기과 5585	김영수	5586	수	월,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
	김세중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안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최종보	5587	화, 금	수	폐노장예, 요실금, 남성과학(성기능장애)	
	오동근		수, 목	월	남성과학, 요로결석, 요실금	
	강지훈		월	화, 금	비뇨기 종양(암)	
	일반진료	금	수, 목			
재활 의학과 5802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수손상	
	나은우	5796	수, 목	화,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자 재활	
	임신영	6440	화(사정클리닉)	월, 수, 금	소아재활, 학습장애, 언어발달장애	
	윤승현		월, 금	화, 수, 목	노인재활, 근골격계 재활, 스포츠손상재활	
	일반진료	화	목			
지방내과 5823	김선용	5854	월, 화, 목		뇌혈관질환 중재적 치료	
	원재현	5863	월, 수, 금		혈액질환(중재적 치료, 체중관리, 체지방률관리)	
	일반진료	5145	수, 금	화, 목		
방사선 종양학과 5884	전미선	5884	월-금	월-금	종양(부인과, 유방암, 소화기암)	
	오영택	5884	월-금	월-금	종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강승희	5884	해외연수중		종양(뇌종양, 육종, 정위방사선치료)	
	윤석남	5947	월-금	월-금	핵의학(간단, 동위원소치료)	
윤준기	5947	월-금	월-금	핵의학(간단, 동위원소치료)		
산악외과 5644 5606	이경중	5645		화	직업성 질환, 직업성인간공학	
	박재범	5295		목	직업성 질환	
	일반진료	5644		월-금	직업성 질환	
가정 의학과 5959	김광민	5958	월, 수, 금	화	만성피로, 노화관리, 남성갱년기	
	박재범	5957	화, 금	월, 수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김범택		월, 수, 목	금	비만, 갱년기, 골다공증	
	안병훈		화	목	비만, 갱년기, 골다공증	
정재훈		목	월	갱년기, 골다공증		
	일반진료	4808	월-금	월-금		
치과 5869	이정근	5869	월, 화*, 수, 목*	화*, 수*	악안면기형(주걱턱), 임플란트	
	고석민	5869	월*, 화, 금*	월, 수, 금*	인공치아보철, 심미보철, 잇몸질환	
	유성근	5869	수*, 목	월, 수, 목, 금	치열교정, 악안면기형	
	송승일	5869	화, 수*, 목*, 금	화*, 목*	턱관절 장애, 임플란트	
	신혜진	5869	월*, 화*, 목, 금	월*, 목, 금	심미수복, 신경치료, 치아미백	
	일반진료	5869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화, 목 오후는 초진 가능 *는 별도예약	

진료과명 담당의명	의사명	진료일 진료번호	오 전	오 후	야 간	세부진공	비고
응급 의학과 6011	조준필	6005	월, 수		수	외상외과, 응급질환	
	정윤석	6005	화	월, 목	화	두극물중독, 응급질환	
	이국중	6005	금	수	금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민영기	6005	목	화, 금	월	응급의학, 중환자의학	

토요일 특진운영 안내

토요일 외래진료는 주마다 특진의사가 바뀔 수 있으나
세부진공과 관련없이 모든 질환을 진료합니다.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는 세부진공만 진료합니다.
4. □는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